

16세기 전기 단령의 구성법 일례  
—金欽祖(1461-1528) 분묘 출토의 단령을 중심으로—

李 恩 珠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교수

A Case Study of *Dan-Ryung* Construction in Early 16th Century  
—Based on the Shrouds from Excavated Tomb of Kim, Heum Jo—

Eun-Joo Lee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目 次

Abstract	2. 각 부위별 실측 치수 및 구성상의 특징
I. 머리말	IV. 맺음말
II. 김흠조의 인적 상황	참고문헌
III. 단령의 부위별 치수와 구성법 1. 단령 실측표	

Abstract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Dan-Ryung* in the early 16th century based on the shrouds from excavated tomb of Kim, Heum-Jo(1461-1528) is reported in this paper.

This study is aimed at establishing database for a traditional Korean costume construction and emphasizing the necessity for development of methodology in writing report from excavated costume including measuring, construction methods and materials. This paper includes examples of measured length for each part of '*Dan-Ryung*', reconstructed drawings, pictures, and construction methods.

The followings on the construction of *Dan-Ryung* in the early 16th century are found in this study:

- 1) *Dan-Ryung* robes were made of less expensive hemp, cotton, silk & cotton, and ramie & silk.
- 2) As a whole, *Dan-Ryung* was lengthy and spacious and it had straighter and narrower sleeves when compared to the ones from the late Chosun.
- 3) There existed Moo which was large rectangular gusset with double pleats at *Dan-Ryung*'s side seam. Its round collar was constructed with a 3 cm width bias. Ball buttons on the outer collar and loops on the right shoulder are attached.

- 4) There existed a pair of indirectly attached slim and short strings. Inside string is directly attached.
- 5) Inside of the shoulder, a U-shaped shoulder pad made of the same cloth as the inner cloth was attached. Hand sewing methods used include delicate flat-felled seam stitch, back-stitch and sew-up stitch.

## I. 머리말

1997년 3월, 경북 영주-평은간 국도 4차선 공사 시행 중 영주 이산면 소재의 金欽祖(1461~1528) 분묘에서 복식류를 포함한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된 祭文과 輓詞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미상<sup>1)</sup>으로 알려져 있던 피장자 김흠조의 생몰 연대가 밝혀지게 되었으며 분묘의 遺構와 출토 유물을 통해 당대의 喪葬禮 제도는 물론, 그와 관련된 斂襲衣 제도와 복식의 유형, 형태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sup>2)</sup>. 김흠조 분묘에서 출토된 복식류는 엽습구를 포함하여 총 60여 점에 이르며 그 중 袍는 단령 7점을 포함하여 직령 2점, 답호 11점, 철릭 12점이 수거되어 총 4종 32점에 이르렀다.

다양한 유형의 복식 중 특히 袍類는 착용사 길으로 쉽게 드러나는 복식이다. 차수를 포함한 구성상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살펴 본다면 추후 복식 고증이나 복원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종대의 김흠조 분묘에서 출토된 포류 중 우선 단령의 구성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16세기 전기 한국복식의 고증과 복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분묘의 출토복식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보고서 작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간행된 출토복식 보고서의 체제는 상당히 다양하다. 출토된 유물의 유형이나 특징,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여건 등에 따라서 그 체제가 달라지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연구자들의 연구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보고서 발간 후에도 유물에 대해 다른 관심을

지닌 연구자들이 유물을 다시 확인해야만 하는 상황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그때마다 유물을 확인하게 된다면 유물 훼손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재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물예의 치명적인 손상 때문에 유물 소장처에서는 유물 공개를 꺼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유물을 빈번히 확인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출토복식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분야별 연구자들이 연구 방법이나 보고서 작성 방법 등을 함께 논의함으로써 보고서의 체제나 연구 방향과 틀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실측표나 실측도 등의 내용이 추후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논의의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II. 김흠조의 인적 상황

본 분묘의 피장자인 김흠조는 의성김씨 17세손으로, 말년에 掌隸院 判決事(정3품)를 지냈던 中宗代 인물이다. 《朝鮮王朝實錄》과 《國朝人物志》에도 김흠조에 대한 기록은 있으나 생몰 연대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출토된 만사 및 제분 등의 자료에 의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세조 5년(1461)에 출생하여 嘉靖 7년 즉 중종 23년(1528)에 향년 67세로 사망하였다<sup>3)</sup>고 한다.

그는 僉正 孝友의 5남 중 셋째 아들이며 翰林 金申의 증손이다. 자는 敬叔, 호는 樂琴堂이며 淑夫人 鄭氏와의 사이에 4남 1녀를 두었다고 한다. 그리고 연산군 7년(1501)에 式年文科에 급제하여 檢閱을 지내고 중종 2년(1507)에는 藝文館 奉教로서 鄭忠樞·李希曾·尹仁鏡·鄭熊 등과 함께 戊午士禍 때 화를 입은 金宗直·金駟孫 등의

1) 李秉休, '김흠조 金欽祖',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1994, p. 117.

2) 줄고, '조선 전기 斂襲衣의 일례: 金欽祖(1461~1528) 분묘의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比較民俗學》 第15輯, 1998, pp. 93-120.

3) 南權熙, '金欽祖 先生 墳墓 移葬時 出土 記錄資料 研究', 《이산면 묘지 출토유물 보존처리결과 중간보고》, 영주시, 1997, p. 19.

신원과 柳子光 등의 처벌을 주청하는 상소를 올려 유자광을 유배시키고李克墩의 벼슬을 追奪시켰다. 중종 4년(1509) 彥陽縣監으로 나가 時弊七條를 개진하였으며 1521년에는 尙州 牧使를 지냈다.

중종 20년(1525)에는 濟州 牧使가 되어 移鐵과 點馬官 파견을 주청하였으며 1526년에는 掌隸院 判決事가 되었으나<sup>4)</sup> 두 해 뒤인 1528년에 생을 마감하였다.

### Ⅲ. 단령의 부위별 치수와 구성법

본 분표 출토복식 보고서에는 각 유물 유형별로 <개관> 항목에서 해당 유물의 전반적인 특징을 기술하였다. 각 유물에 대해서는 유물 번호순으로 실측표를 제시하는데, 실측표에는 사용된 소재의 종류나 색상<sup>5)</sup>, 보수 여부, 세부사진 촬영 상황, 그리고 유물의 특징 등을 기록하였다. 그와 아울러 Auto CAD(version 13)로 제도한 실측도를 제시하고 유물 사진을 곁들여 가시적으로 유물의 형태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령 유물 7점 중 상태가 가장 양호한 <유물 3>에 대한 실측표와 실측도 등의 자료를 예로 제시하고, 치수 항목별 고찰을 통해 실측 순서와 방법, 구성상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단령 유물에 대한 구성법의 일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 1. 단령 실측표

단령은 모두 7점이 수거되었는데, 모두 홀으로 제작된 것이었다<sup>6)</sup>. 麻布 2점, 綿布 1점, 絲綿 交織 2점, 苧絲 交織 2점이었는데, 사용된 옷감의 나비는 34~38 cm 범위였다. 7점의 유물 중 면포 단령(유물 3)이 상태가 가장 양호한 반면에, 나머지 6점은 손상되어 형태 안정성이 희박하였으며, 따라서 치수 측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표 1).

단령 유물 중 상태가 가장 좋은 <유물 3>의 실

측 치수는 <표 2>와 같고, 실측도는 <그림 1>과 같으며 <그림 2>는 그 형태를 사진으로 제시한 것이다. 다른 유형의 유물 실측에서도 그렇듯이, 품목별 실측표의 구성은 가능한 한 표준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치수 계기에 편리한 순서로 배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측표에 기록된 내용으로 유물의 전반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제시된 치수나 기록을 참고하여 제도는 물론 제작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실측표와 아울러 실측도와 유물 사진을 가까이 배치하여 유물의 형태 확인이 용이하도록 배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출토되는 유물 유형에 대해서 이러한 실용적인 기본 조건을 갖춘 표준화된 실측표가 시대별로 마련된다면 유물에 대한 형태적 또는 구성적 이해는 물론, 보고서 작성이나 복원 작업사 보고서의 활용이 훨씬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 2. 각 부위별 실측 치수 및 구성상의 특징

실측표 <표 2>의 항목 순서에 의거하여 치수와 각 부위별 구성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뒷길이

본 연구에서의 뒷길이란 뒷중심선 상의 목 중심점에서 아랫단까지의 길이이다. 뒷길과 앞길은 어깨선에서 그대로 연결되도록 골로 재단되었으며 특히 앞길과 뒷길의 길이 차이는 없었다. <그림 2>처럼 앞길을 겹쳐 놓았을 때 앞길과 뒷길의 길이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앞길이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7점의 뒷길이는 148~158△ cm의 범위에 있어서 편차가 10 cm 정도이며 평균은 152.6 cm이었다.

조선 전기의 단령 유물 중 李彥雄의 단령을 제외한 丁應斗의 단령, 碧珍李氏의 단령, 洪係江의 단령이 前短後長 양식<sup>7)</sup>이었으며 지난 5월에 발표된 鄭溫(1481~1538)의 모시 단령과 무명 단령도

4) ①《義城金氏大同譜》, ②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CD-ROM 서울 六百年史: 인물편》, 1997.

5) 본 보고서의 유물 색도는 Chroma meter(CR-200, Minolta)를 이용하여 측정된 것이다.

6) 현재까지 보고된 조선 전기의 단령 유물은 모두 홀으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실록에 '袂圓領(端宗 卽位年 十月 癸巳 등)'의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겸단령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7) 朴聖實,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壬辰倭亂 以前 時期를 중심으로, 世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2, p. 429.

&lt;표 1&gt; 단령 유물별 치수 비교 및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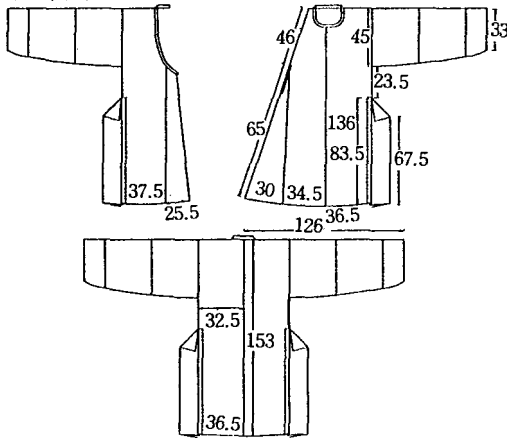
(단위 cm)

유물번호	뒷길이	화장	뒷폭	진동	수구	무		깃		고대	소재	밀도(경× 위/cm)	상태
						길이	나비	길이	나비				
1 S 1	154	122	32	46	31	81	35△	-	3	18	마포	24×20	완파
2 S 2	149	129	34	47	39	72	37	126△	3	21	사면교직	25×20	원형
3 S 3	153	126	32.5	45	33	83.5	34.5	129	3	19	면포	21×23	원형
4 S 4-1	158△	122	34	52	36	81	35	139.5△	2.6	21	저사교직	27×35	완파
5 S 4-2	154△	125	32	47	33	78	34	136△	2.8	19	저사교직	27×35	완파
6 S 5	148	121	32	51	36	72	34	130	3	17	마포	26×19	반파
7 S 6	152	122.5	32	46	39△	72	47	136△	2.5	19	사면교직	24×20	완파

\* 치수를 측정할 때, 추정되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더 길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 끝에 △를 표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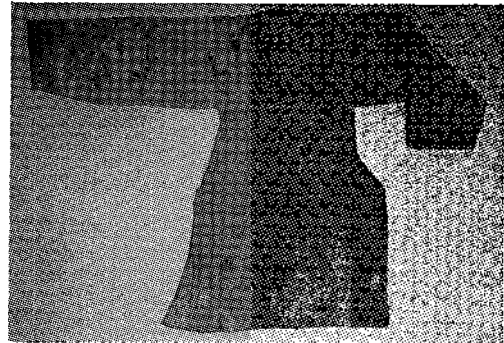
\*\* 앞길이는 뒷길이와 동일함.

YK3/53/DN3



&lt;그림 1&gt; &lt;유물 3&gt; 실측도

전단후장의 양식을 보이고 있다<sup>8)</sup>. 그러나 본 분묘의 단령 유물은 7점 모두 앞길기와 뒷길기의 차이가 없었다. 단령의 전단후장 양식은 착용자의 체형과 관련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옷 길이가 발목 정도까지 어르는 긴 길이이므로 허리가 다소 굵은 사람의 경우, 앞자락이 밟히지 않도록



&lt;그림 2&gt; &lt;유물 3&gt;(단령3)의 형태(앞)

배려한 결과일 수도 있다. 조선 후기의 문헌 <閩閩叢書>에서 '남자 옷을 만들 때 앞 다섯 살 아진 은 앞을 뒤보다 길게 하고 예순 이후는 뒤를 앞보다 길게 한다'<sup>9)</sup>고 한 것으로 보아도 의복 제작에 연령에 따른 체형의 변화를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다.

뒷길기를 이루는 뒷중심선 솔기는 조선 후기와 마찬가지로 입어서 오른쪽으로 향하였다. 왼쪽

8) 박성실, '坡州 金陵里 솔토 慶州 鄭氏 유물 小考', 《韓國服飾》第16號, 檀國大學校 附屬 石宙善紀念 民俗博物館, 1998, p. 37.

9) 憑虛閣李氏, 《閩閩叢書》, 서울: 普晉齋, 1984, p. 131.

<표 2> 단령 실측표(유물 3)

(단위 cm)

유물 3		S3 (단령3, 영김14)			특 징		사 진	
겉 감	소재	변포	나비	38	-상태: 원형(단령 중 가장 좋음) -바느질: 섬술, 박음질, 감침질 -시점 나비 단, 수구, 무 가장자리 각 1.5 cm		-깃	
			밀도	21×23/cm			-암수 단추	
안 감	소재	-	나비	-			-고름바대	
			밀도	-			-겨드랑 덧대기	
겉감색		70.98 / +3.83 / +15.84(L/a/b)						
1	뒷길이		153		18	안섷길이:내/외(올방향)	101/90(사선)	
2	화장(각 폭 나비)		126(34.5+37+37.5+17)		19	안섷나비:상/하	4.5/25.5	
3	진동/소매솔기길이/수구		45/43/38/33		20	길고름바대	형 태	일자형
4	겨드랑 옆선길이		23.5				나비/길이	0.5/21
5	뒤폭/뒷길밀단(중심→무)		32.5/71(36.5+34.5)		21	길고름위치	겉섷쪽:상/하	46/67
6	무길이:내/외/박음		83.5/67.5/14				右腋쪽:상/하	3/22
7	무주름:내/외		2.5/14		22	길고름형/나비/길이		간접부착형/??/?
8	겉길밀단(섷→무)		136(30+34.5+36.5+35)		23	안 쪽	형 태	직사각형
9	겉섷길이:내/중/외(올방향)		136.5/110/46+111(사선)				옆선 바대	나비/길이
10	큰겉섷 나비:상/중/하		2.7/29/34.5		24	안고름위치	안섷쪽	깃과 섷 교차점
11	작은겉섷 나비:상/하		0/30				左腋쪽	겨드랑집에서 9↓
12	깃길이(겉깃+고대+안깃)		129(47.5+19+62.5)		25	안고름형/나비/길이		직접부착형/1.5/33
13	깃 길이/나비		17/3(바이어스 재단)		26	어깨 바대	형태	U자형
14	겉깃끝형태/나비(섷+깃)		사각형/5.7(2.7+3)				나비/길이(등)	37/28(14.3)/9(좌)/10(우)
15	단추:형태/직경/길이		매듭단추/0.2/2		기 타	-겨드랑 부위 무 덧대기: 사각형 (윗변/아랫변/높이=2/2.5/5)		
16	압단추위치(깃접힘선기준)		0(섷 달린 것 끝쪽)					
17	안길밀단(섷→무)		95(25.5+37.5+32)					

\*?: 실측이 불가능한 경우의 치수

\*\* ↓ : 내려감 표시

길 시점으로 오른쪽 시점을 써서 오른쪽 뒷길에 곱게 감치는 섬술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나비는 0.2 cm로서 아주 가늘고 정교하게 바느질되어 있었다.

2) 화 장

화장은 뒷길 목 중심점에서 소매 끝까지의 길이이다. 화장의 총길이를 재고 길과 소매를 이루고 있는 각 폭을 재어서 각각의 나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7점 모두 1폭의 나비가 34~38 cm 정도인 옷감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뒷중심선을 기준으로 볼 때 길과 소매는 각각 한 폭, 세 폭으로 이루어져 총 네 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특히 옷감 폭이 다른 것에 비해 다소 좁은 <유물 6>은 온 폭 네 폭을 사용하였고, 그 나머지 6점의 단령은 모두 온 폭 세 폭에 마지막 수구쪽 폭에 반 폭 정도의 옷감을 연결하였다. 그리고 수구 부분의 시점은 1.5 cm 나비로 접어서 곱게 감침질

하였다.

〈유물 2〉는 129 cm로 화장이 가장 길었으며 가장 짧은 것은 〈유물 6〉으로 121 cm였으며 평균 123.9 cm였다. 각 쪽의 연결은 고운 박음질로 하였으며 박음질한 0.2 cm 나비의 시접은 일정한 방향이 없었다. 소매 배례선은 0.3 cm 정도의 두께로, 뒤쪽으로 넘긴 싹솔로 처리하였다.

### 3) 진동 및 수구

〈그림 2〉처럼 어깨선을 중심으로 접혀진 상태에서 진동길이(진동둘레의 1/2)와 수구길이, 그 사이의 소매 각 술기선 길이를 재어 소매모양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진동선이 소매의 각 술기선 길이보다 길었다. 즉 수구 쪽으로 가면서 소매가 점차 좁아지는 양상을 보였으며 진동과 수구의 차이는 대략 6~16 cm였다.

가장 긴 진동선은 52cm(유물 4), 가장 짧은 것은 45cm(유물 3)로서, 평균 길이는 47.5cm이었다. 〈유물 4, 6〉만이 다른 것에 비해 유난히 진동 길이가 길었다. 한편 수구는 가장 긴 것이 39cm(유물 2, 7), 가장 짧은 것은 31cm(유물 1)로서, 모두 30cm 범위였으며 평균 길이는 35.3cm였다.

### 4) 겨드랑 옆선길이

겨드랑 옆선길이이란 겨드랑 점에서 옆선에 붙은 무 직전까지의 길이를 말한다. 가장 긴 것이 24cm(유물 5)이고 가장 짧은 것이 20 cm(유물 1)로 나타났다. 치수가 정확한 4점의 평균 길이는 22.6 cm이다.

### 5) 뒤폭 및 뒷길밑단 나비

뒤폭은 뒷중심선에서 좌측<sup>10)</sup> 옆선까지의 나비 중에서 가장 가는 부위를 재는 길이이다. 치수의 범위는 32(유물 1, 5, 6, 7)~34(유물 2, 4) cm였으며 평균 32.5cm였다.

뒷길 밑단은 밑단 뒷중심선에서 무 끝까지의 나비이다. 〈유물 7〉을 제외한 6점은 1쪽의 길과 1쪽의 무로 구성되어 있었다. 〈유물 7〉은 특히 무가 다른 단령에 비해 넓어서 그 나비가 46.5 cm에 이르는데 온 폭 하나에 10 cm 정도의 좁은 폭을 덧이여 두 조각으로 만들었다. 중심점부터 펼

친 상태의 무 끝까지 측정한 밑단 나비는 65 cm(유물 6)에서 83 cm(유물 7)의 범위이며 평균은 71.8 cm였다.

### 6) 무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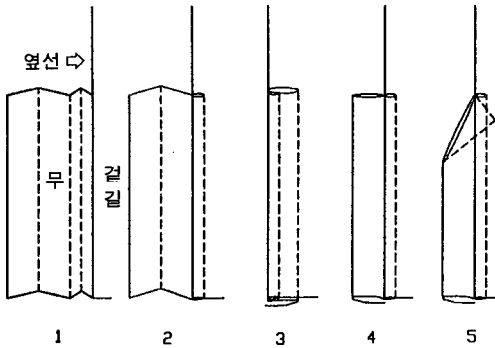
‘내’, ‘외’, ‘막음’이라는 세 부분으로 실측된 무 길이는 무의 세로선 방향과 관련된 길이이다. 본분묘에서 출토된 단령의 무는 함께 출토된 직령이나 담호의 무와 동일한 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대체로 1쪽의 옷감으로 이루어진 무는 안팎으로 자리하는 작은 주름과 큰 주름 두 개의 주름으로 구성된다.

무 주름 제작단계(그림 3)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길 겨드랑이 옆선 아래쪽에 박음질로 0.2 cm 나비 시접의 무를 단다. 이때 무 윗부분의 시접(0.5 cm)을 무의 걸감 쪽으로 꺾어 둔다(겨드랑 덧대기를 다는 경우는 이때 단다). 가장자리 시접은 1.5 cm 나비의 시접으로 접어서 감침질한다.
- ② 옆선에 연결된 무 일부를 3 cm 내외로 접어 겨드랑 안쪽으로 넣어서 작은 주름을 만든다.
- ③ 작은 주름을 접고 남은 무를 다시 반으로 접어 작은 주름과 같은 방향으로 큰 주름을 잡는다. 대·소 주름의 윗부분을 접은 상태로 각각 감침질하거나 공구르기를 한다.
- ④ 큰 주름의 안쪽이 걸음으로 나오도록 주름을 뒤집어 바깥쪽으로 빼낸다.
- ⑤ 큰 주름 무의 위 부분을 삼각형으로 접어 주름 사이에 접어 넣는다.

위 단계에 의해 완성된 무의 경우, 밖으로 나온 큰 주름의 무 길이는 삼각형으로 접혀진 만큼 길이가 짧다. 따라서 대소 주름이 완성된 후, 옆선에 달린 부위의 무 길이를 ‘내’, 밖으로 나온 큰 주름에서 윗부분을 삼각형으로 접어 넣어 짧아진 가장자리 길이를 ‘외’라고 하였다. 그리고 앞·뒤 무 자락의 가장자리 세로선에서 위쪽 일부를 꺾어 붙인 경우도 있는데 이를 ‘막음’ 길이라고 하였다.

10) 좌측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우측 길의 폭을 측정하였다.



<그림 3> 무 주름 제작 단계  
(앞길 우측 무의 예)

앞선에 붙은 무의 길이, 즉 내측 길이는 72~83.5 cm 범위에 있었으며 평균은 77.1 cm이다. 삼각형으로 접혀진 상태의 외측 길이는 52~70 cm로 그 차이가 컸으며 평균은 60.8 cm이었다. 유물 하나에도 삼각형으로 접혀졌던 흔적이 두 줄 이상 있는 것으로 보아 접은 위치가 일정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앞·뒤길의 무 세로선 가장자리 부분의 시접은 1 cm로 접어서 곱게 감칠질하였으며 앞뒤길 무의 세로 가장자리의 윗부분을 막은 경우는 두 유물에서만 확인되었다. 그 '막음' 길이는 각각 1 cm와 4.5 cm이었다.

### 7) 무 주름나비

<그림 3>에 제시된 예처럼 단령의 완성된 무에는 크고 작은 1쌍의 주름이 잡혀 있다. 앞선 쪽 가까운 부위의 작은 주름은 길 안쪽으로 향했고 그 주름나비가 '내'에 해당된다. 한편 밖으로 향한 뻗은 주름은 안으로 향한 주름보다 큰 주름인데, 그 나비를 '외'로 표기하였다.

대·소 주름의 나비는 무의 나비에 의해 결정되는데, 박성실의 연구(1992)<sup>11)</sup>에서는 작은 주름의 나비가 4~8 cm, 큰 주름의 나비가 18~23 cm로 보고된 바 있다. 지난 5월에 보고된 鄭溫의 무명 단령도 대·소 주름구조가 동일하였으며 큰 주름의 나비는 20 cm였다.<sup>12)</sup>

본 분묘 단령의 무 주름나비는 선행보고서에서의 치수보다 다소 좁은 편이다. 즉 내측으로 들어

간 작은 주름은 나비가 2 cm(유물 6)에서 4.5 cm(유물 7) 범위로서 평균 3.1 cm였다. 그리고 외측으로 뻗은 큰 주름은 평균 14.6 cm로, 12.5 cm(유물 5)에서 18 cm(유물 7) 범위였다.

### 8) 겉길 밀단나비

겉길 밀단은 겉선이 달린 앞길의 밀단 전체 나비이다. 겉선은 작은 실과 큰 실 두 개가 달린 이중선 구조인데, 이는 조선 전기의 단령을 포함한 포류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특징이다. 무가 두 조각으로 구성된 <유물 7>을 제외하고는 길 1 폭과 무 1 폭이 더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겉길 밀단 길이는 실에서 무까지의 네 조각(<유물 7>은 다섯 조각)의 치수를 합산한 것이다.

밀단의 총나비는 124~144 cm 범위였으며 평균은 134.2 cm이다. 밀단의 폭 중 가장 좁은 폭인 작은 겉선의 나비는 25~30 cm였다. 큰 겉선은 거의 옷감 폭에서 시접 분량만이 제외된 나비였으며 무 부분의 나비 역시 <유물 7>을 제외하고는 시접 분량을 제외한 치수였다.

한편 밀단 시접처리는 1.5 cm 나비로 접어 올려서 곱게 감칠질하였는데, 조선 후기의 일반적인 바느질 방식과 마찬가지로 겉선 가장자리 시접을 먼저 처리한 후 밀단 시접을 꺾어 올리는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 9) 겉선길이

겉선길이에서 '내' 길이는 길과 큰 겉선이 연결된 부위의 길이로, 단령의 등근 길이 가장 깊게 달린 앞 중심선 부분의 길이이다. '중' 길이는 큰 겉선과 작은 겉선이 연결된 부위의 길이이다. 그리고 '외' 길이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길이는 어깨부위에서 작은 겉선이 연결되기 전까지의 큰 겉선의 상부 외측 길이(상)에 작은 겉선의 외측 길이(하)를 합한 길이이다.

내측 길이는 122.5~136.5 cm이었으며 평균 길이는 127.8 cm이다. 한편 큰 겉선과 작은 겉선의 연결 부위인 '중'의 길이는 94.5~110 cm이었고 시작점은 대체로 오른쪽 겨드랑점과 수평으로 일치하였다. 가장자리 실선은 상부가 41△~50 cm,

11) 朴聖實, 앞의 글, 1992, p. 429.

12) 朴성실, 앞의 글, 1998, p. 67 참조.

하부는 93~111 cm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상부와 하부를 합한 외측의 총길이는 134△~156 cm가 된다.

한편 설 각 폭을 연결할 때, 길과 연결된 큰 걸선의 올방향은 길에 연결되는 부위가 식서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큰 걸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다소 좁아지므로 작은 걸선이 달리는 큰 설의 가장자리 올방향은 약간 사선 방향으로 되었다. 작은 걸설도 큰 걸설에 달리는 쪽이 식서방향이였다. 작은 걸설의 위쪽 끝이 완전히 좁아져서 삼각형이 되므로 작은 걸설의 가장자리 외측 선의 올방향은 큰 걸설의 솔기선보다 심하게 사선이 되었다. 따라서 가장자리 선이 늘어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듯이 1.5~2 cm 나비의 끈은 울의 別布 안단을 대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길과 큰 걸설의 솔기선의 시점은 걸설 쪽을 향했는데, 길의 시점으로 큰 걸설의 시점을 감싸서 걸설에 감침질하는 0.2 cm 나비의 싹솔이었고 작은 걸설에서도 마찬가지로 작은 걸설 쪽을 향한 싹솔로 바느질하였다.

### 10) 큰걸설 나비

걸설 중 앞 중심선에 연결된 큰 걸설은 거의 옷감 한 폭으로 이루어지나 위쪽이 약간 좁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상' 나비란 솟단추가 달린 걸깃 끝부분이 연결되어 있는 어깨선 상의 좁은 걸설 나비이다. '중' 나비는 작은 걸설이 달리는 위치에서의 큰 걸설 나비를 측정한 것이고 '하' 길이는 아랫단의 나비를 측정한 것이다. '상' 나비는 2.7~4 cm, '중' 나비는 29~33 cm였으며 '하' 나비는 33~37 cm였다.

### 11) 작은 걸설 나비

작은 걸설의 상부와 하부의 나비이다. 작은 걸설의 형태는 긴 삼각형이므로 상부의 나비는 어느 유물이나 0 cm이며 하부는 26~30 cm였다.

### 12) 깃깊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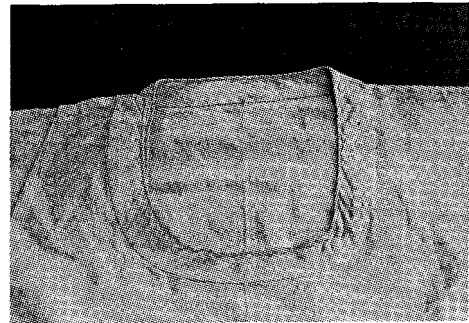
깃깊이는 길에 연결된 깃선을 따라 잰 걸깃에서 고대, 안깃에 이르는 총길이를 말한다. 총길이는 126△~139.5△ cm이며 걸깃은 47.5~55△

cm, 고대는 17~21 cm, 안깃은 57△~64.5△ cm였다. 깃은 바이어스로 재단하여 목에 닿을 가장자리는 줄이고 길에 붙일 부분은 늘이는 방식으로 U자형을 만들었다. 특히 목이 직접 닿는 깃의 가장자리 부분은 0.3 cm 정도의 파이팹 장식을 하면서 줄여 곡선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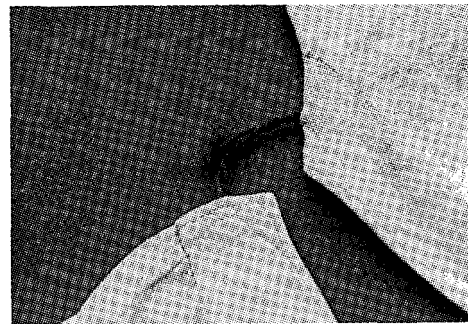
### 13) 깃 깊이 및 나비

깃깊이는 뒷길의 뒷중심점에서부터 앞길 중심선상에 깃이 달린 점까지를 측정한 것이다. 그 길이는 17~18 cm였으며 바이어스로 제작된 깃의 나비는 2.5~3 cm였다. 8 cm 정도나 되는 조선 후기의 것에 비해 상당히 좁음을 알 수 있다(그림 4). 깃을 달 때 안팎 모두 공구르기 방법을 사용하였다.

### 14) 걸깃끝 형태 및 나비



<그림 4> 깃과 단추의 모습(유물 3)



<그림 5> 걸깃 끝부분과 암수 매듭단추 (유물 3)



걸것 끝부분은 걸쇠의 일부와 함께 연결되어 사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위치는 어깨선과 일치하였다. 이 항에서 말하는 걸것 끝부분의 나비란 걸것 나비와 걸것에 연결된 걸쇠의 나비를 포함한 치수이다. 그 나비는 5.5~7cm였으며 걸쇠만의 나비는 깃의 나비보다 다소 넓었다(그림 4, 5).

### 15) 암수 단추의 형태와 크기

깃 여밈에는 암수 한 쌍의 매듭 단추가 사용되었다. 물론 떨어져서 흔적이 없는 경우도 있으나 암·수 단추가 모두 좋은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유물 3)도 있다.

얇은 자주색으로 보이는 옷감을 0.2cm 두께로 말아서 가는 끈으로 만들어 연봉매듭을 한 후, 솟단추를 만들었다. 솟단추가 달린 위치는 예외도 있지만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부분 깃 끝 중심에 달려 있었다. 암단추 역시 솟단추와 동일한 소재로 만들었으며 고리형으로 접혀진 상태가 2~4cm 길이였는데 솟단추가 쉽게 빠져지 않도록 꼬임을 주어 신축성을 갖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 16) 단추 위치

암단추는 깃길이 상으로는 우측 고대와 안깃의 경계선상에 달렸는데, 접힘선에 달린 경우가 네 점이나 되고 안깃 쪽으로 1cm 내려간 부위에 달린 것이 1점, 뒷고대로 1cm 넘어간 점에 달린 것이 1점, 4cm 넘어간 점에 달린 것이 1점 있었다. 깃 나비 상에서는 솟단추의 위치와 맞추어 달았는데, 대체로 깃나비 중간에 달리는 경우가 많았고 그 외에 걸쇠 쪽의 깃 끝 부위에 달린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깃 거죽에 작은 구멍을 내어 암단추를 끼워 넣고 꿰매어서 고정시켰다(그림 5).

### 17) 안길 밑단 나비

안길 밑단의 치수는 걸것 밑단의 길이와 마찬가지로 우측 자락 단의 전체 나비를 잴 것이다. 안깃은 걸쇠가 두 조각으로 구성된 이중깃이었던 것과는 달리 한 조각으로 구성된 단깃 양식이었다. 그래서 쇠 1쪽에 길 1폭, 무 1폭으로 구성되는데, 각 치수는 쇠에서 무 방향으로 각각의 나비를 잴 것이다. 총나비는 93.5~107.5cm였으며

그 중 안깃의 나비는 걸쇠의 작은 쇠보다 좁은 25~27.5cm 정도였다.

### 18) 안깃 길이

안깃의 '내'측 길이는 길에 연결된 부위의 길이이며 '외'측 길이는 쇠의 바깥쪽 가장자리 길이이다. 내측의 길이가 외측의 길이보다 길어서 95~102.5cm였으며 평균 길이는 98cm이다. 외측 길이는 88~93cm로 나타났다. 평균 길이는 89.3cm이다.

그리고 길 쪽에 붙는 안깃의 울이 식서 방향이 었기에 외측은 당연히 사선으로 재단되었다. 안단으로는 역시 걸쇠에서와 마찬가지로 곧은 울의 좁은 단을 대었다. 그리고 걸쇠 쪽의 중심선과 쇠선의 솔기는 뿔살로 굽게 처리하였지만 보이지 않는 안깃과 길을 연결한 솔기선은 뿔살보다 공이 덜 들어가는 박음질로 꿰매어 편의성을 취했다.

### 19) 안깃 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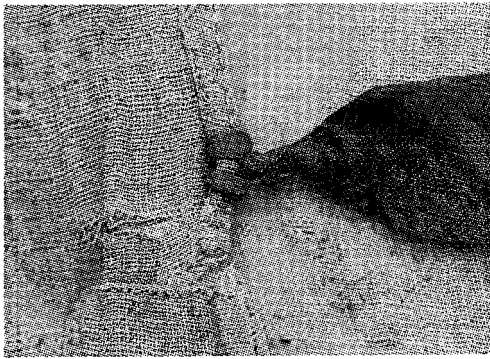
안깃의 상부 나비는 안깃이 달린 안깃 외측 끝 지점에서의 나비이다. 그 나비는 3.5~6cm였으며 평균은 4.6cm였다. 안깃의 하부 나비는 안깃 밑단 치수에서 언급되었듯이 25~27.5cm였다.

### 20) 검고름바대

단령에는 걸것의 끝과 오른쪽 어깨 깃 중심 부위에 암수 단추가 각각 달리지만 그 외에도 다른 포류와 마찬가지로 우측 옆선과 옆선 위치에 해당되는 작은 걸쇠 도련선상에 가는 고름 1쌍씩을 각각 달았다. 7점 모두 <그림 6>에서 볼 수 있는 고름을 달기 위한 가는 '일자형 고름바대'가 사용되었다. 즉 0.5cm 나비에 19.5~23cm 정도의 길이로 만든 가는 일자형 끈을 뒷길 오른쪽 옆선 쪽에 하나 붙이고 그 옆선 위치에 해당되는 걸쇠 가장자리 선상에 다른 하나를 꿰맨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전체 둘레를 삼침으로 고정시킨다. 걸쇠 외측선상에서의 고름바대 위치는 대체로 큰 걸쇠와 작은 걸쇠가 연결된 부위에서 시작된다. 9)항에서 설명하였듯이 작은 걸쇠의 시작점이 오른쪽 겨드랑점과 수평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림 6> 겹고름바대(유물 3)



<그림 7> 간접부착형의 고름(유물 1)

고름바대를 우측 옆선(뒷길쪽)과 겹섶에 고정시킬 때는 바대의 가장자리를 박음질하는데, 바대의 위와 아래 부분에는 22)항에서 설명할 ‘간접부착형 고름’을 달 수 있도록 1.5~2.5 cm 정도의 틈을 만들어 두었다.

21) 겹고름 위치

겹고름의 위치는 고름바대가 달린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 대체로 옆선의 길이에 맞추어 가는 일

자형 고름바대가 달리고 그 양 끝으로 1쌍의 고름이 달리게 된다. 박성실의 연구(1992)<sup>13)</sup>에서는 한 쌍의 고름이 달린다고 하여 ‘한 쌍 고리식 고름’으로 명명한 바 있다.

겹섶 쪽의 고름은 옆선 부위에 맞추어 자리하게 되는데, 대체로 겹섶 끝에서 46~52 cm 정도 내려온 위치이다.

22) 겹고름침 및 고름의 나비와 길이

양끝으로 틈이 있는 가는 일자형 고름바대에는 조선 후기에 거의 보이지 않는 古式 고름이 달린다. 즉 길이나 섶에 고름을 직접 꿰매어 부착시키는 조선 후기의 전형적인 방법과는 달리, 고름바대의 고리기둥에 고름 밀동을 걸어서 고름을 다는 ‘간접부착형 고름’<sup>14)</sup>을 1쌍 단다. 간접부착형 고름은 끈 고리 부분과 좁고 짧은 고름 부분이 결합되어 하나의 고름으로 완성된다.

단령에서 유일하게 한 쌍의 고름이 남아 있는 <유물 1>에서 ‘간접부착형 고름(그림 7)’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뒷길에 붙어 있는 고름의 고리 부분 길이는 1 cm이었고 직사각형의 작은 고름은 2 cm 나비에 26.5 cm의 길이였다.

‘간접부착형 고름’의 제작 단계는 <그림 8>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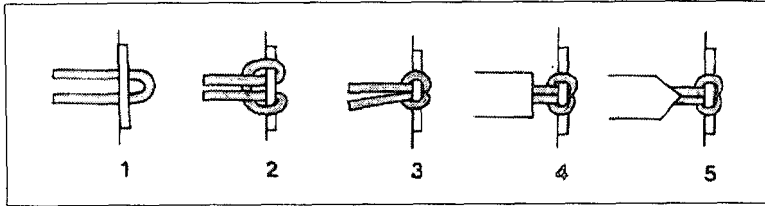
- ① 0.2 cm 정도로 말아서 가늘게 만든 길이 3 cm 내외의 끈을 반 접어 고름바대의 틈에 밀어 넣는다.
- ② 끈의 끝을 고리에 끼운다.
- ③ 고리형 고름바대에 엮은 고리를 조여서 형태를 만든다.
- ④ 나비 2 cm, 길이 30 cm 전후의 고름 끝을 벌려서 고리끈 두 가닥을 끼워 넣는다.
- ⑤ 고름 시점을 양쪽에서 접어 넣어 삼각형으로 만든 후 고리 끈에 꿰매어 고정시킨다.

23) 안쪽 옆선바대

홀으로 제작된 포류에는 예외없이 옆선 안쪽으로 옆선바대가 확인되었다. 단령의 경우도 예

13) 朴聖實, 앞의 글, p. 233.

14) ‘간접부착형 고름’이라는 명칭은 본 연구자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명명한 것이다. 고름바대에 끈 고리를 걸어서 다시 고름을 부착시키는 방식이고 이와는 달리 직접 고름을 꿰매는 방식에 대해서는 ‘직접부착형 고름’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림 8> 간접부착형 고름의 제작 단계

의는 아니다. 후술할 거드랑 덧대기와 더불어 양 옆으로 달린 커다란 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바이어로 재단한 것이 1점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식서로 재단하였다. 안감 쪽으로 폭이 2~2.5 cm 되는 좁은 직사각형을 옆선에 놓고 길게 단다. 길이는 대체로 옆선보다 다소 긴 25~30 cm 길이인데, 위쪽으로는 소매 거드랑 쪽으로 까지 넘어가며, 아래쪽으로는 무 시작점보다 1~2 cm 정도 더 내려간다.

#### 24) 안고름 위치

안고름은 앞섶 쪽의 안깃 끝 부위와 왼쪽 거드랑 안쪽에 하나씩 달린다. 안깃 쪽의 고름은 대체로 깃과 섶이 만나는 지점에 달리는 경우가 흔하고 안깃 끝에 달린 경우도 있다. 거드랑 쪽은 거드랑 점에서 옆선 상으로 9~15 cm 내려온 지점에 달렸다.

#### 25) 안고름형 및 고름의 나비와 길이

단령에 사용된 안고름의 부착방식에도 겹고름과 마찬가지로 직접부착형과 간접부착형이 있다. 그러나 <유물 2> 1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접부착형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안고름에는 바느질법이 간단한 '직접부착형' 방법이 흔히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유물 3>의 왼쪽 거드랑이 안쪽으로 1.5 cm 나비에 길이가 33 cm 되는 안고름이 남아 있어서 '직접부착형 고름'의 대체적인 치수를 파악할 수

있다.

#### 26) 어깨바대<sup>15)</sup>

어깨바대는 홉옷의 어깨 안쪽에 대는 어깨받침이라고 할 수 있다. 어깨선을 중심으로 등과 앞길에 부분적으로 닿도록 대는데, 대체로 걸감과 동일한 옷감을 사용하였다. 조선 전기의 洪係江(15세기~16세기 추정) 분묘의 단령에는 H자형 어깨바대가 사용되었고 이언웅(중종~선조대 추정) 분묘 출토의 단령에는 ㅼ자형 어깨바대가 사용되기도 하였다<sup>1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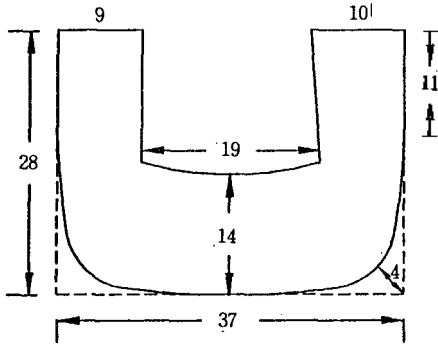
그러나 본 분묘에서 출토된 단령에는 7점 모두 U자형 어깨바대가 사용되었다. 즉 등쪽의 양끝을 둥글게 굴린 모양이다. 어깨바대의 나비는 31~37 cm 범위였는데, 대체로 한 폭의 옷감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어깨 전후에 걸쳐진 어깨바대의 길이는 23~27 cm이다.

뒷고대점에서 등으로 내려간 부위의 길이는 11.5~15 cm이며 바대 길이의 중간 정도가 어깨선에 위치하였다. 뒤에서 앞으로 넘어온 양 끝부분이 좌우 길에 연결되는데, 입은 상태에서의 좌측 어깨쪽 끝 나비는 7~10 cm였으며 우측의 끝은 7.3~10.5 cm였다. 이 나비는 어깨바대의 나비와 깃이 달린 위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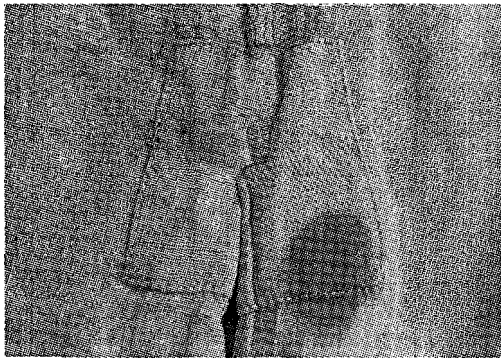
그리고 어깨바대의 고정을 위해 앞길 끝의 수평선 두 부위(<그림 9>의 9 cm 부위와 10 cm 부위)를 앞길 좌우에 각각 감침질로 고정시켰고 등쪽의 굴러지는 부위 역시 감침질로 고정시켰다.

15) 본 분묘의 출토복식에서 나타나는 어깨바대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었다. 그 형태에 따라 본 연구자가 임의로 U자형, H자형, ㅼ자형으로 명명하였다. H자형, ㅼ자형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16) 朴聖實, 앞의 글, 1992, p. 260, 320 참조.



<그림 9> U자형 어깨바대(유물 3)



<그림 10> 옆선 앞뒷길에 연결된 사다리꼴 겨드랑 덧대기(유물 3)

어깨 양 끝의 직선 부위는 길에 고정시키지 않았다.

27) 겨드랑 덧대기

거죽 쪽 겨드랑이 옆선 아래로 무가 달리는 부분에는 무 트임집을 중심으로 小罫形(유물 1, 4)<sup>17)</sup>이나 직사각형 또는 사다리꼴(그림 10)의 덧대기를 붙였다. 이러한 덧대기는 직령에서도 확인되는데, 옆선 안쪽에 옆선바대를 대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한 실용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7점 모두 걸감과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였으며 길에 무를 붙인 후 무의 주름을 잡기 전에 덧대기

를 박음질로 상침한다. 완성된 상태의 크기는 윗변이 2~3.5 cm, 아랫변이 2.5~4.5 cm, 높이는 5~6.5 cm이다. 덧대기는 길에 무를 달고 옆선을 봉합한 후, 무가 시작되는 부위를 중심으로 좌우에 달게 된다.

덧대기 다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 대칭으로 재단한 L 자형 두 조각을 겨드랑 옆선에 델 부분, 즉 상부 반 정도만 박음질한다. 박음질로 봉합한 부분의 시집은 가름솔로 처리한다.
- ② 덧대기의 가장자리 0.5 cm 시집을 모두 안쪽으로 접어 정리한다.
- ③ 무의 대·소 주름을 잡기 전, 무를 펼친 상태에서 ②의 덧대기의 박음질한 부위와 옆선을 맞추어 포갠다. 덧대기 아랫부분의 돌출 부위(1 cm)는 무 쪽으로 넘어간다(이 부분은 무의 주름을 잡으면 작은 주름의 부분이 되므로 겨드랑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덧대기의 가장자리를 박음질로 상침한다.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1997년 3월에 경북 영주시 이산면 소재의 金欽祖(1461~1528) 분묘에서 출토된 단령 유물 7점을 중심으로 16세기 전기의 단령 구성법 일례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는 최근 세계화 추세에 따른 전통문화의 재창출을 위한 고증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전통복식의 고증과 복원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고, 그와 아울러 출토복식 보고서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한 작성법, 즉 실측표를 포함한 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구성내용, 체계, 방법론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본 분묘 출토복식 보고서에서 사용한 실측표나 실측도, 사진 자료 등의 체계를 보고서의 일례로 제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었다.

제시된 자료를 통해 16세기 전기의 단령 구성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17) 小罫形이란 사다리꼴에서 허리부분이 양쪽으로 잘록하게 들어간 형상을 말한다. 전통목계가구에서 못을 사용하지 않고 면과 면을 이을 때 사용하는 '나비장' 방법에서도 소요형을 볼 수 있다.

단령은 본래의 색상은 확인할 수 없었으나 麻布, 綿布, 絲綿 交織, 苧絲 交織 등 소박한 옷감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전통직물의 일반적인 나비는 34~38 cm의 옷감이 사용되었다.

단령의 크기는 길고 풍성한 편으로, 평균 뒷길이가 152.6 cm에 이르므로 착용시 거의 발목을 덮을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앞·뒷길이의 차이는 없었다. 한편 화장은 평균 123.9 cm 정도였고 대부분 길 한 폭과 소매 두 폭 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소매는 수구 쪽으로 점차 좁아지는 筒袖였다. 전통 나비는 평균 47.5 cm, 수구는 35.3 cm 정도였다. 겨드랑 옆선 길이는 평균 22.6 cm였으며 뒷폭은 평균 32.5 cm 정도였다.

뒷길 밑단 부분은 뒷중심선을 기준으로 길 1폭에 무 1폭이 연결되었으며 평균 나비는 71.8 cm였다. 무는 대·소 주름으로 구성되었는데 평균 3 cm의 작은 주름은 길 안쪽으로 넣었고, 나머지 분량으로 접어진 14.6 cm 정도의 큰 주름은 길 밖으로 내어 윗부분은 삼각형으로 접어 넣었다. 무 길이는 평균 77.1 cm였으나 바깥쪽 길이는 끝을 삼각형으로 접어 넣어 평균 60.8 cm였다.

단령의 특징인 둥근 깃은 후기의 것과 마찬가지로 바이어스로 만들어졌으나 완성된 나비가 3 cm 내외로 상당히 좁았으며 앞부분의 길이도 17~18 cm 정도로 얇게 파였다. 그리고 깃 바깥쪽 둘레에는 0.3 cm 두께의 파이핑 처리를 하였다. 그리고 겹깃 나비의 중간에 솟단추를, 오른쪽 어깨 부위의 깃나비의 중심에 암단추를 달았음을 알 수 있었다.

겹깃은 큰 겹깃과 작은 겹깃으로 이루어진 이중깃이었으며 겹깃 쪽 밑단의 총나비는 134.2 cm였다. 겹깃의 길이는 길과 큰 겹깃이 연결된 내측 길이가 127.8 cm, 큰 겹깃과 작은 겹깃이 연결된 부위의 중간 길이가 94.5~110 cm였으며 큰 겹깃 일부와 작은 겹깃 가장자리 선으로 이루어진 외측의 길이는 134.5~156 cm 범위였다. 작은 겹깃의 시작점은 오른쪽 겨드랑점과 수평선상에서 거의 일치되었다. 한편 안선은 한 조각으로 구성된 단선 형식이었는데 길에 달린 부분의 길이는 평균 98 cm, 외측 길이는 평균 89.3 cm였다. 안선은 길에 달린 부분이 올방향이어서 외측의 가장자리 선이 올방향인 조선 후기의 양식과는 차

이가 있었다.

한편 겹깃과 우측 옆선에 각각 1쌍의 고름을 달았다. 고름은 조선 후기와는 다른, 1 cm 길이의 끈 고리 부분과 2×26.5 cm의 소형 고름 부분으로 구성된 '간접부착형 고름'을 달았다. 그 고름은 고름을 걸 수 있도록 상하에 틈을 만든 가는 '일자형 고름바대'에 달았다. 특히 겹깃 쪽 바대 위치는 작은 겹깃이 달리는 위치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지점은 우측 겨드랑 옆선이 시작되는 겨드랑점과 일치하는 지점이었다. 안고름은 1.5×30 cm 정도의 고름을 직접 케맨 '직접부착형'이었으며 안깃 끝과 왼쪽 겨드랑 안쪽에 각각 1개씩을 달았다.

홀 단령이므로 어깨 안쪽에는 걸감과 동일한 감으로 만들어진 어깨바대가 달렸는데, 모두 동쪽의 양끝이 둥글려진 'U자형' 바대였다. 크기는 보통 한 폭을 나비로 하였고 길이는 23~27 cm의 범위였다.

그리고 1폭의 무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옆선 안쪽에 옆선 길이보다 상하로 다소 연장한 2 cm 정도 나비의 옆선바대를 달았으며 겹깃으로는 무의 시작 부분을 중심으로 사다리꼴이나 小 粟形의 겨드랑 덧대기를 달아서 겨드랑 부분의 길 자체가 훼손되지 않도록 배려했었다.

바느질은 전체적으로 곱게 되어 있었다. 7점 모두 홀이었으므로 등술기와 겹깃 솔기, 소매 배래솔기는 시접 폭이 0.2~0.3 cm로 완성되었는데, 한 쪽 시접으로 다른 쪽 시접을 싸서 길이나 싹, 소매 뒷면 등에 대고 감치는 싹솔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며, 그 외의 진동선이나 소매선, 안선 솔기선, 무의 솔기 등, 눈에 크게 띄지 않는 부분은 거의 옷감 폭 끝을 그대로 이용하여 0.2 cm 폭 시접으로 곱게 박음질하였다. 그리고 수구와 무 끝 세로선 시접, 밑단은 1~1.5 cm로 접어 고운 감침질로 정리하였다.

한편 재단은 어깨 시접없이 골로 앞뒷걸을 이어서 올방향으로 재단하였으며 싹을 포함하여 길과 소매의 대부분을 요즈음의 재단 방식대로 그대로 식서 방향으로 하였다. 따라서 겹깃이나 안선 재단은 모두 바깥쪽 선이 사선으로 재단되었다. 대신 올방향으로 재단된 짧은 안단을 대서 싹 가장자리선의 늘어남을 방지했음을 알 수 있었다.

추후 다른 포류를 비롯하여 다양한 복식류의 품목별 구성상의 특성을 정리하고 아울러 통시적 구성법의 지속성과 변화성 등을 고찰함으로써 시대별 구성법의 각 복식의 구성법이 종합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제작하는 사람의 기법이나 지역적 특성, 가문의 전통 등에 의해 부분적으로는 다른 구성법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구성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조선시대의 복식 구성법이 체계화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건들바우박물관 편, 《晉州河氏墓 出土文獻과 服飾調査報告書》, 1991.
2. 京畿道, 大韓住宅公社 編, 《韓山李氏 忠簡公 李基祚 合葬墓 發掘調査報告書》, 1993.
3. 권영숙, 이주영, '조선 초·중기 여자 장의(長衣)제도',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연구보고 제21편, 부산대학교 가정대학, 121~179, 1995.
4. 金明淑, 《洪禹協 墓 出土 17世紀 服飾 論攷》, 忠北大學校 博物館, 1993.
5. 南權熙 외, 《이산면 묘지 출토유물 보존처리 결과 중간보고》, 영주시, 1997.
6. 朴聖實, "朝鮮前期 出土服飾研究: 壬辰倭亂 以前 時期를 중심으로", 世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2.
7. 박성실, '坡州 金陵里 출토 慶州鄭氏 유물 小考', 《韓國服飾》第16號, 檀國大學校 附屬 石宙善紀念 民俗博物館, 31~89, 1998.
8. 朴聖實, 高富子, '高陽 陵谷 茂院 出土 羅州丁氏 月軒公派 出土遺物 小考', 《韓國服飾》9, 檀國大學校 附設 石宙善紀念 民俗博物館, 45~57, 1991.
9. 憑虛閣李氏, 《閩閩叢書》, 서울: 普晉齋, 1984.
1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CD-ROM 서울 六百年史: 인물편》, 1997.
11. 이은주, '조선 전기 斂襲衣의 일례: 金欽祖 (1461~1528) 분묘의 출토복식을 중심으로', 《比較民俗學》第15輯, 93~120, 1998.
1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1994.